

강기정 “최종 책임 질테니 일에만 매진해라”

비엔날레 홍보영상 논란에
“매우 잘된 기획” 평가·격려
“무료 티켓 남발 옳지 않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홍보영상’ 논란을 언급하며 “최종 책임은 제가 질테니 공직자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일에만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비엔날레 홍보영상에 일각의 반론도 있지만 매우 잘된 영상으로 크리에이티브와 홍보기획이 돋

보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강 시장은 “과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영상을 제작했음에도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그에 비하면 25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비엔날레 홍보영상은 지난 8일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빛튜브’에 올라온 40여초 짜리 영상물이다. ‘비엔날레’와 발음이 비슷한 ‘비엔나’에서 착안해 줄줄이 이어진 비엔나소시지를 소재로 영화 ‘반지의 제왕’을 패러디했다. 이를 두고 ‘참신하다’는 긍정 반응과 ‘하급 유튜브버도 이 정도 아이디어는 안낼듯’이라는 등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강기정

강 시장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징표다”며 “논란이 일어나거나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의 행복과 방향이 맞다면 최종 책임은 제가 지

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행사의 무료 티켓을 남발하는 관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비서실에도 관행대로 비엔날레 무료 티켓이 한 보따리 와서 돌려보냈다”며 “티

켓을 사주는 것이 예술을 키우고,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가뭄 대책 수립, 국가산단 유치, 군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차세대산업과의 노력으로 100만 평 미래차 자동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으며, 군공항이전과의 노력 등으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다른 여러 부서도 모두 열심히 뛰여주셔서 좋은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반드시 성과를 체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 2030년 결핵 퇴치 목표
올해 17억 투입 예방 강화

광주시는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목표로 예방 활동을 벌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는 2019년 48.7명, 2020년 41.2명, 2021년 37.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생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치로는 감소세를 유지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광주시는 10만명당 10명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핵 퇴치를 위해 올해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한다.

돌봄 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고교 2~3학년 검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검진 등을 추진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으로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 자치구와 함께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 환자 관리를 지원하고 영유아 등 돌봄 시설의 1년 미만 계약 종사자 대상 잠복 결핵 검진도 하기로 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검사를 받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횡령 수사 관광협회 사업 위탁
시 “전문성 등 역량 대안 없어”

광주시가 수억대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관광협회에 사업을 또 위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광협회는 올해 관광안내소(5억원), 관광두레 지역 협력 센터(4억원)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광두레 센터는 3년 계약에 따라, 관광안내소는 지난해 말 이월된 연간 계약에 따라 운영 중이다.

관광안내소 위탁 계약은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진행됐다.

관광협회에 지정 위탁하도록 한 광주시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지침을 따랐고 전문성 등 역량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광주시는 해명했다.

그러나 기정 횡령을 의심해 수사 의뢰까지 한 단체에 수억원대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관광협회에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내년부터는 공모로 운영 기관을 선정하거나 관광재단에 사업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관광협회는 수년간 관광안내소 운영 등 민간 위탁 사업비 수억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협회 관계자, 민간인 1명씩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길용현 기자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 출범식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12개 기관·단체·협회·학계와 상생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21개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선정

제방·배수갑문·부속시설 정비
1,268억 투입, 2025년 완료

전남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21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신규 착수 대상지는 국가관리 3개 지구, 지방관리 18개 지구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미리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붕

괴와 파손을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을 막아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6개 시군 35개 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21개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총 1,26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착수하는 21개 지구 중 국가관리방조제 3개 지구는 ▲영암 ▲보성 ▲신안 태천지구다. 지방관리방조제 18개 지구엔 ▲강진 1곳 ▲고흥 4곳 ▲해남 2곳 ▲신안 11곳이다.

신규지구는 설계 착수단계부터 전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세부설계를 연내 완료해 2024년 상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에 방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낙후농업 기반시설 개선,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초기 마무리를 위해 국고예산 추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방조제 936개 지구에 대해 1조2,375억원을 투입해 개보수사업을 추진했다. /정근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자치시대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그린궁 GREEN GOONG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